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의미 - 한 대학생의 동아리 활동 경험을 사례로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aning of an Undergraduate Student's Environmental Club Experience

주형선 · 김종욱
(서울대학교)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 의식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증폭되었다. 환경 위기에 대한 이러한 대중적 관심은 정부나 지역 공동체 수준에서 다양한 대응책 모색으로 이어진다. 1970년대 초 일련의 국제회의를 중심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한 환경교육 역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성립 초기부터 부여된 환경교육의 이러한 특성은 지난 30여년 동안 이 분야에서 진행된 연구들에 반영되어 있다. 실지로 많은 연구들이 특정 환경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환경적 특성이 변화했는가'하는 결과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그 의도와 달리 이러한 연구 경향은 환경교육의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환경적 특성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질문에 충분히 답하고 있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들 연구에 깔린 가정이 가지는 문제점이다. 기존 연구는 학습자의 환경적 특성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는 '보편적인' 환경경험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여기서 학습자의 "삶의 희망이나 목적(Gough, 1999)" 그리고 그가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Miller, 2000)"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는 백지 상태에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형성된 선이해를 갖고 교육의 장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구성하는 능동적 주체이며, 이러한 구성 작용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가 처한 특정한 삶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교육가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학습자의 환경적 특성은 인식 주체인 학습자가 그가 처한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여 나름의 환경적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경험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환경동아리 활동을 하는 김수연이라는 한 대학생의 경험을 사례로 하여, 수연이 개인적,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여 환경에 대한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또는 믿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하는 방식과 존재의 양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이 주요한 질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수연의 동아리 활동 경험을 잘 드러

낼 수 있는 개념들을 새로이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학습자의 환경경험의 의미를 사회적 맥락에서 유리된 심리적 현상이나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환경태도, 환경태도의 가치 기반, 환경의식 등으로 협소화하면서, 경험 자체의 특성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연의 환경적 특성 역시 새로운 개념들을 통한 수연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기초해서야만 그것이 어떻게 변화 또는 유지, 정체되는지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경험의 한 양상으로서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이 교육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개인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변화하는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기적 연구방법(biographical research)(Roberts, 2002)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질문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을 하는 수연의 환경 경험의 특성을 드러낼 개념들은 무엇인가?

둘째, 개념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수연의 환경동아리 활동 경험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셋째, 환경경험의 한 양상으로서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의미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환경동아리 ‘생명’ 활동을 하면서 수연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증가하는 차원을 넘어 자기 정의에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환경의 맥락에서 새로운 자기 정의를 내리게 되는 변화를 보인다. ‘나는 누구인가’하는 자기를 정의하는 사회적 맥락에 인간적 환경뿐만 아니라 비인간적 환경까지 포함되는 변화를 설명하는 환경정체성이라는 개념들이 수연의 환경동아리 활동 경험을 드러내는데 유효함을 알 수 있다. 이 때, 수연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단순히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자신의 참여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위치를 재규정하게 되고 나아가 인간관계나 진로 모색에서 환경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성적 정체성이나 민족적 정체성처럼 생물학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정의되는 어떤 구조적 특성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는 다양한 환경실천 과정에서 환경/환경운동이라고 하는 특정한 문화세계가 부각되고 이 과정에서 행위성이 증가하고 환경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앞의 세 측면에서 환경정체성의 형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환경운동의 세계가 부각된다는 것은 환경이 지적 추구의 대상일 뿐 수연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부각단계에서 점차 관심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변화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환경이 수연의 일상 생활 및 타자와의 관계, 진로 모색 등 개인적 삶에서 중요해지고 사회적 환경실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수연의 삶에서 환경/환경운동이 부각되는 데는 이 세계에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행위성의 발달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행위성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발달한다. 수연은 ‘생명’ 활동을 시작한 새내기 시절 환경문제 해결에 자신이 무기력하다고 느끼면서 무관심해지고 스스로를 주변화시킨다. 하지만 ‘생명’ 활동의 일부분인 환경운동이 우리 사회의 환경의

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몸소 느끼게 되면서 동아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에 대해 제대로 알아가려는 동인을 얻게 된다. 다양한 환경실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지역 주민의 문제로 구체화되고 이들의 고통과 주장에 공감하게 된다. 또한 점차 우리 사회의 낮은 환경의식에 대한 상심이 깊어지면서 자신이 환경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스스로를 주체로 세우게 된다. 또한 수연의 삶에서 환경/환경운동이 부각되고 이 세계에서 행위성을 획득하는 과정은 환경문제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나름의 관점을 세워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수연은 다양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환경실천에 참여하고, 그 경험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의 특성을 점차 이해하게 된다. 환경문제를 보는 관점은 격언처럼 꼭 따라야 하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보다 설명력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은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과정이다. 수연의 삶에서 환경운동의 세계의 부각은 자신이 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감 즉 행위성의 관여 없이 어려우며, 환경문제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행위성 발달의 자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연의 환경동아리 활동 경험은 환경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점에서 그 특성이 드러난다. 환경정체성 형성 과정으로서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은 다음 세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첫째, 환경교육 목적의 재설정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가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원으로 한정되는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접근이며, 환경교육의 목적은 한 존재의 정체가 환경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 하는 환경정체성의 형성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연의 '생명' 활동은 '환경문제 해결학습'이라는 하나의 학습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현실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스스로 문제를 구성하게 되고 나아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통해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자신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는 점에 있다. 수연이 동아리 회원들 사이의 대화나 세미나뿐만 아니라 각종 캠페인과 현장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 환경문제를 합리적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데 균열을 일으켜 감정적인 관여를 불러오고 이는 또 다른 실천이나 경험을 조직하는 동인이 된다. 이것은 동시에 "문제공간 (Gauthier, 1997)"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하여, 학습자들이 과학적, 사회과학적 또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평가와 달리 수연이 환경문제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을 이해하게 한다. 다양한 환경실천에 참여하면서 현실 환경문제를 학습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연 나름의 문제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동아리로서의 '생명'의 문화는 수연의 주체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소통 그리고 선배라는 역할모델의 존재 역시 환경문제 해결학습의 풍부한 토양이 된다. 마지막으로 '생명' 활동 과정에서 형성되는 수연의 정체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는 사회적 지배적인 환경인식에 대한 동일시적 정체성 즉 합리적 정체성에서, '국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일련의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정에 반대하고, 핵폐

기물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는 전문가주의에 반대하는 저항적 정체성으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성찰적 정체성으로의 변화한다. 수연의 정체가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을 넘어 환경 문제의 해결에 대한 주체적인 모색으로 변화하는 데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는 숙고의 과정을 통해서이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정은 반성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면에서 교육적 모습인 동시에 환경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 세계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환경 주체의 형성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수연의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은 존재의 자기 정의에 있어 환경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환경정체성 형성 과정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과정은 환경교육의 목적이 한 존재의 정체가 환경과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 하는 환경정체성의 형성 차원에서 새로이 설정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현실 환경문제에 대한 직접적 참여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학습'이라는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서 수연 스스로 문제를 구성할 수 있게 하여 환경문제를 보는 나름의 관점을 갖게 할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의 모색이나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면에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대학생 환경동아리 활동은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환경과의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는 환경 주체의 형성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Gough, N. (1999). Surpassing our own histories: Autobiographical methods for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Environmental Education Research*, 5(4), pp. 407-419.
- Miller, C. (2000). An Open Field, *Pacific Historical Review*, 70(1), pp. 69-76.
- Roberts, B. (2002). *Biographical Research*, Open University Press, Buckingham · Philadelphia.